건축과 함께하는 시로 지은 집

House created by a poem

다양한 지붕과 추녀의 선이 아름답게 어울린 창덕궁 희정당

장양순 | 건축사사무소 창건축, 한서대 겸임교수

지붕

집은 지붕이 완성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기초나 기둥도 지붕을 만들기 위한 선행 작업이다. 건축법은 기둥과 벽만 있고 지붕이 없는 경우, 건축면적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어느 부분이든 지역적 특성을 갖게 마련이지만 특히 지붕은 기후에 따라 모양새가 다르고 재료도 다르다. 비가 잘 오지 않는 건조한 지역은 편편한 평지붕을 만들어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저장하려 하고, 눈비가 많은 지역은 눈의 하중과 빠른 빗물 빠짐을 위하여 경사가 급한 지붕을 만든다.

향지형(向地形)의 초가와 향천형(向天形)의 와가가 어울린 하회마을

한국의 지붕은 재료에 따라 크게 초가(草家)와 와가(瓦家)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의 형태는 대조적이다. 초가의 지붕선은 반구형에 가까워 땅으로 내려오는 느낌인데 반하여 기와지붕은 용마루와 추녀 끝이 하늘로 들려있어 솟구치는 느낌을 갖는다. **"기와집 지붕에서 비상하려는 새를, 혹은 비룡을 연상한다면 초가는 땅에 뿌리를 박은 식물을 연상하게"**[1]되는 것이다. 과거의 전통양식이 남아있는 마을을 살펴보면, 기와집 몇 채가 초가집 여러 채를 거느리고 있는 형상이다. 이는 기와집의 규모가 크고 따라서 건물의 높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스케일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가지붕의 향지형(向地形)과 기와지붕의 향천형(向天形)에서도 그리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수밭 속에 머리 수그린 / 겸손한 오막사리 잿빛 지붕 위를 / 푸른 박덩쿨이 기어 올라갔고 / 엉크린 박덩쿨 나리 밟고서 / 허-연 박꽃들이 거만하게 / 아침을 웃는 마을.

-김기림[2] '마을'

초가지붕의 박과 박꽃

수수의 키보다도 낮은 초라한 오막사리이기에 주인이 심어 올린 박조차 우습게 여겨 거만하게 웃고 있다. 하지만 그 거만이 평화롭고 다사롭게 느끼는 것은 어인 일인가. **"초가집의 황홀을 자늑자늑 씹는 흰옷 입은 아가씨"**[3] 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까치 한 마리 홀로 수숫대에서 잠들고 一鵲孤宿蓴黍柄
달 밝고 이슬 희고 밭둑 물은 졸졸졸 月明露白田水鳴
나무 아래 작은 집, 바위같이 둥근데 樹下小屋圓如石
지붕 위에 박꽃은 별처럼 반짝이네 屋頭匏花明如星

-박지원 '효행(曉行) -연암집(燕岩集)'

오늘의 한국인은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농촌의 초가집도 모두 기와나 평슬래브지붕으로 바뀌어 초가는 민속촌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귀물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50대의 어린 시절만 하

1) 박경리 '토지'
2) 1908. 함북 성진. 「기상도」, 「바다와 나비」, 「새노래」
3) 이희승 「박꽃」 1896-89. 국어학자

※주기 : 시에 있어서 /는 줄바꾸기, //는 연바꾸기, ///는 전략, 중략, 후략 시 사용.

여도 연암(燕岩)의 시처럼 초가지붕 위의 박꽃을 환히 비추는 보름달은 가장 목가적인 농촌의 모습이었기에, 회상만으로도 순수의 눈이 되어 과거와 오늘을 본다.

그날 밤은 보름달이었다 / 건넛집 지붕에는 흰 박꽃이 / 수없이 펼쳐져 피어 있었다 / 한밤의 달빛이 푸른 아우라로 / 박꽃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 –박꽃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 –네/아버지 방 툇마루에 앉아서 나눈 한마디, / 얼마나 또 오래 서로 딴 생각하며 / 박꽃을 보고 꽃의 나머지 이야기를 들었을까 / –이제 자려무나 / –네, 아버지 / 문득 돌아본 아버지는 눈물을 닦고 계셨다. // 오래 잊었던 그 밤이 왜 갑자기 생각났을까 / 내 아이들 박꽃이 무엇인지 한번 보지도 못하고 / 하나씩 나이차서 집을 떠났고 / 그분의 눈물은 이제야 가슴에 절절이 다가와 / 떨어져 있는 것이 하나 외롭지 않고 / 내게는 귀하게만 여겨지네.

–마종기[4] '박 꽃'

지붕과 박이 항상 낭만의 주인공만 되는 것은 아니다. 썩어가는 지붕에서 따낸 박 한 통은, 밥 빌어먹는데 필수인 쪽박을 만들어 가지고 떠나는 일제 강점기 빈민의 현실이 도사리고 있다.

초라한 지붕 썩어가는 추녀 위엔 박 한 통이 쇠었다 / 밤서리 내려앉은 밤, 시들하던 넝쿨이 사그라 붙던 밤, 지붕 밑 양주(兩主)는 밤새워 싸웠다. / 박이 딴딴히 굳고 나뭇잎새 우수수 떨어지던 날, 양주는 새 바가지 귀어들고 초라한 지붕, 썩어가는 추녀가 덮인 움막을 작별하였다.

–오장환[5] '모촌(暮村)'

지붕의 존재가치는 지붕 밑 삶의 공간을 위한 것인데도, 시인들은 지붕 위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하기야 건축사도 지붕의 모양과 재료가 집의 형태나 성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겉모양에 관심이 많다보니, 일맥상통이다. 지붕위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들이 존재한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낭만자객이 있다면 단연 고양이다 / 그들은 아직까지 지붕을 애용한다 / 그 위에서 생선을 발라먹고 사랑을 낳고 달빛의 노래를 듣는다 /// 먹다 남긴 생선뼈들과 욕정이 묻은 털 따위를 세간처럼 묻히고 살아 있다 / 그것도 맨몸으로 비바람과 싸우며 살아있다 지붕은 / 그 아래 세상모르고 잠든 자들보다 / 친구인 고양이들을 위해 봉사하길 더 좋아한다 / 고양이가 등을 움추려 지붕에 오를 때를 보라/지붕도 한껏 어깨를 낮춰주는 것을 / 지붕 위에서 놈들의 싸우는 소릴 듣는다거나 / 애기 울음 같이 발정 난 구애 소리를 듣는 밤은 / 예리한 칼이 심장을 베고 가는 듯 얼얼해 진다 / 그 위에 앉아 보는 상상만으로 나는 얼마나 전율했던가 / 무림영화의 주인공처럼 술 호리병 하나 차고 / 허리뼈 부러질 각오로 한번 올라보고 싶어지는 그 곳 // 오늘도 포구의 고양이들 / 횟집 지붕 위로 물 좋은 생선을 길어 올리며 / 퍼덕이는 지붕과 놀고 있다.

–문성해[6] '지붕'

고양이가 노는 지붕은 어쩐지 양철지붕이 어울릴 듯하다. 시골 마당에서 개에게 쫓긴 닭은 사력을 다해 육중한 몸을 날려 지붕 위에 오른 후, 언제 쫓겨 갔냐는 듯이 지붕 위를 여유롭게 거닌다. 그런 닭을 허탈하게 쳐다보는 개의 모습은 어릴 때 많이 보아왔다. "닭 쫓던 개"의 지붕이나 **'경박한 참새들은 포플라의 지붕 밑에서 눈을 떠서 분주히 노래하는'**[7]곳은 초가지붕이 제격이다. 비슷비슷한 집들로 구성된 도회지의 골목풍경은 기와집이 연상된다. 시인들은 지붕재료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를 그려보면 시가 더욱 맛깔스럽다.

지붕 위에는 인간 아닌 자연과 동물의 웃음과 속삭임이 있다. 알 수 없는 꽃이 피기도 하고 닭이 올라와 꽃과 이야기도 한다.

1. 필요에 따라 추녀 깊이가 다른 구례 운조루 암수재
2. 창덕궁 후원 부용정의 겹친 처마선

바람이 몹시 부는 날 / 지붕이 비슷비슷한 골목을 걷다가 / 흰 비닐에 덮혀있는 / 둥근 지붕 한 채를 보았습니다 // 새가 떨고 있었습니다 / 나무꼭대기에 앉아 있다가. / 날개를 접고 추락한 작은 새가 / 바람에 떠밀려가지 않으려고 / 흰 비닐을 쥔 채 / 조약돌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 네모난 옥상들 사이에서 조그맣게 웅크린 / 우는 발로 견디는 / 둥근 지붕.

–박형준 '지붕'

이 밖에도 **"지붕에 널리 말린 생선들이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전혀 다른 밀을 하기 시작"**[8]하는 생선들과 **"지붕 위에 앉아 바이올린을 켜는 염소 / 어두운 다락방에서 울고 있는 나를 위해 바이올린을 켜는 염소 / 내 시는 그 어린 염소가 쓴다."**[9]는 염소, 그리고 어린 날 뽑아 던진 유치(幼齒)까지 지붕엔 많은 것들이 있다. **///"어디론가 세월도 아사를 하는가 보다 / 어릴적 내가 살던 동네 / 기억속에는 아직도 솜틀집이며 그 옆 이발소며 / 이빨을 뽑아 지붕위로 던지던 기와의 너울들 / 마당을 지나 아장아장 툇마루로 걸어오던 / 햇빛까지 눈에 선한데"**

–권대웅[10] '휘어진 길 저쪽' 중

4) 1939. 일본동경. 1966. 도미. 「안보이는 사랑의 나라」
5) 1918. 충북 보은. 「성벽 」 외
6) 1963. 경북 문경. 「자라」, 「아주 친근한 소용돌이」, 「입술을 건너간 이름」
7) 김기림 '들은 우리를 부르오'
8) 박형준 1966. 정읍. 「나는 이제 소멸에 대하여 이야기 하련다」 중에서
9) 함기석 1966. 청주. '지붕 위의 염소' 중 「청주 국어선생은 달팽이」 외
10) 권대웅. 1962. 서울. 「떨림」 「당나귀의꿈」 외

요즈음엔 / 지붕위로 올라가는 날이 잦다 / 내가 누군가를 지나치게 그리워하고 / 또 그 그리움으로 인해 / 깨진 저 서녘 하늘처럼 /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 아니다 / 아직도 누군가를 못잊어 / 못잊어 한다는 말이 아니다 / 지붕위의 빛나는 별이여 / 어느 날 그대라고 불리웠던 / 내 가슴 속 / 단단히 못 박힌 이여 / 당신을 사랑했었단 말은 더더욱 아니다 // 별이 진다 / 이 밤 누군가 / 이 별의 맑은 꿈을 꾸고 있는가 보다 –최갑수 '지붕위의 별'

앞 시의 부정으로 일관하는 시어는 더욱 큰 긍정으로 다가온다. 사랑하되 같이 할 수 없는 나약한 젊은이의 애련이 가슴을 저민다. 앞의 시는 지붕 위에서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지만 다음의 시는 영원한 이별을 승화시키고 있다. 두 시인은 별이 있는 하늘까지 지붕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건축가는 하늘에 오르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다 실패하고, 수백년에 걸쳐 앙천(仰天)을 위해 첨탑이 있는 교회를 설계하였다. 최근에는 828m의 버즈 두바이 빌딩이 아랍 에미리트에 완공되면서부터 구름을 굽어보는 건축물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시인처럼 지붕에서 하늘로 곧 바로 가지는 못한다.

우리네 습속은 사람이 죽으면 지붕에 올라 망자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초혼(招魂)을 하였다. 하늘에 있는 영혼의 통로, 그 시발점이 지붕이다.

당신은 지붕으로 올라가 어디론가 갔지 / 길 없는 곳 / 가운데를 열어둔 시간 속으로 / 그날 손을 흔들 때 별은 빛났네 / 별리야 늘 들여다보면 빛나는 것 /// –성석제 '첫사랑을 기리는 노래'

이제 이런 사랑을 떠나 희망과 패기서린 사나이를 통해 새롭게 지붕을 바꾸는 작업을 감상해 보자.

햇살의 벗겨진 정수리를 밟으며 사내는 능숙하게 지붕을 오른다 헐벗은 어깨 서로 감싸며 기와들이 웅성거린다 맨 처음 사내는, 누군가 실수로 밀어올린 배드민턴공과 화석처럼 굳어버린 새똥 같은 지붕의 누추와 집착의 무게를 하나씩 벗겨낸다 // 그 위에 푸른 페인트를 둠뿍 붓는다 어떤 추억의 그림자도 뚫고 나오지 못하게… 가끔씩 튀어 오르는 상념들은 작업복을 붙잡고 늘어지지만 곧 심드렁하게 탈색되어 갈 것이다 갑작스런 변화에 몸을 떠는 지붕, 천천히 사내는 지붕을 달랜다 삐뚫어진 기와 바르게 누이고 구멍 난 자리도 빈틈없이 박는다 상처에 연고를 바르듯이 /// 아린 새 살이 바라볼 하늘을 훔쳐본 사내의 두 볼이 환해지고 있다 해가 지도록 작업은 계속되고 어느덧 나는 깨진 무릎의 상처 위로 스물거리는 새삶을 예감하고 있었다

–문채인 '지붕수리'

한국지붕의 특성은 어떤 재료를 쓰든 처마의 깊이가 깊다는 것이다. 처마를 깊게 잡는 구조는 동양 건축 특색의 하나이다. 중국과 일본도 이와 같은데 중국 중원 지방의 처마 깊이는 기둥 높이에 비하여 약 60% 내외이다. 우리 나라는 약 80% 가량이며, 일본 구주(九州)지방은 약 100% 정도이다. 이는 강우량에 따른 정비례(正比例)이다.

처마가 깊으면 여름날에도 그늘을 드리우기 때문에 방과 대청은 나무그늘과 같이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살을 방속 깊이 투사하여준다. 처마를 깊게 하는 원인 중의 또 하나는 건축자재의 취약성 때문이다. 건축 자재인 목재와 벽 을 형성하는 흙이 습기에 약하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생활관습 때문이다. 농사에 쓰이는 연모나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일차적인 저장소로 처마 밑이 알맞기 때문이다. 또, 작업장으로도 유용한 공간이어서 처마의 깊이는 증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관습과 천연의 여건으로 조건이 구비된 처마는 살림집에서뿐 아니라 공공 건축물에서도 그대로 채택되어서 기와집이라 할지라도 깊은 처마에 큰 지붕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깊은 처마를 가져도 서향집일 경우 여름햇살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창덕궁 연경당의 서재인 선향재는 서향에 차양을 하고도 지는 해의 낮은 햇살을 막기 위해 문짝을 도르래를 이용하여 내리고 올리도록 하였다. 전통와가와 잘 어울리진 않지만 실용적인 차양은 강릉 선교장 등 민가에도 있다. 집은 작을수록 기둥높이도 낮아지고 이에 비례하여 처마도 짧아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집에 사는 서민들에게는 영구적인 차양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기에 여름나기가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래서 생소나무 가지를 처마에 덧대어 햇살을 막는 차양(遮陽)을 만들었는데, 이를 일컫는 송붕(松棚)' 이란 시가 있다.

작은 초가라서 처마가 짧아 / 무더위에 푹푹 찔까 몹시 걱정돼 / 서늘한 솔잎으로 햇살을 가려 / 한낮에도 욕심껏 그늘 얻었네 /새벽에는 이슬 맺혀 목걸이로 뵈고 / 밤에는 바람 불어 음악으로 들리네 / 도리어 불쌍해라, 정승 판서 집에는 / 옮겨 앉는 곳마다 실내가 깊네 小屋茅簷短 偏愁溽暑侵 聊憑歲寒葉 偸得午時陰 露曉看瓔珞 風宵聽瑟琴 却憐卿相宅 徙倚盡堂深 [11]

'조선조 제일의 시인'이라는 칭송을 듣던 권필의 시다. 가난한 시인이 송붕 아래 걸터앉아, 무더위에 그늘 아래 지내는 호사를 가난뱅이도 누릴 수 있다고 한껏 자랑한다. 송붕은 시원한 그늘만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새벽이면 이슬이 맺히고 밤이면 솔바람 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오니, 마치 귀족들이 차고 다니는 값비싼 목걸이처럼 보이고 현악기의 합주처럼 들린다. 어찌 보면 고래등 같은 집의 깊숙한 방안에 처박혀 지내는 귀인

11) 안대회 역, 조선일보—권필(權韠 · 1569~1612)

(貴人)들보다 더 시원하게 여름을 보낸다는 생각도 든다. 무더위를 이기는 데 꼭 좋은 집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시를 번역한 안대회 교수의 해설이다.

나직나직 엎드린 연와(煉瓦)지붕이 / 핑핑 튕겨날 듯 눈 앞에 땅땅 거린다 / 그늘이 반쯤 기어나던 흰 회벽 / 누른 호박벌이 붙어 쉬고 / 주렴 드리운 들창으로/요염한 아낙네의 동그름한 얼굴이 나왔다 들어간다 / 공기는 호박 빛 / 바람은 숲속에 자고 / 나비는 작약그늘이 숨고 / 낮이 옮기는 발자취 들리는 듯 / 게으른 애상이 보시시 눈 드는 정적 / 좁은 들 더운 기운이 이마에 배어들어 / 짠매미 한 마리도 울지 않는 뒤청은 / 눈이 가느라니 감기어 아름 아름 슬프고나 / 등골에 닿는 싸늘한 마루촉감이 차라리 슬프고나 [12]

3

4

5

6

3. 4. 지붕과 벽의 경계가 모호한 두 건물 – 필립스전시관과 시드니 오페라하우스의 야경
5. 서산 개심사 요사체의 처마–쌓아놓은 장작더미와 걸어놓은 시래기 엮음.
6. 여름철 서향 햇살을 막기 위한 창덕궁 연경당의 서재인 선향재 차양. 도르레를 이용한다.

위 시도 권필의 한시(漢詩)와 같은 여름철인데, 요염한 아낙네의 출입 이외에는 모든 것이 멎어 있다. 박꽃의 웃음도, 선비의 자만도 없다. 한낮의 정적은 그저 슬픈 상처뿐이다. 그래서 마루를 통해 등골에 닿는 싸늘한 촉감도 시원한 것이 아니고, 차라리 슬프게 느껴지는 것이다. 행복이 큰집과 작은집, 기와집이나 초가집 등 빈부에 해당 없음을 일깨워 준다.

지붕은 어떤 자재로 해이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억새 따위를 사용한 것이 새지붕, 천연슬레이트인 얇고 검은 돌을 사용하면 너새지붕, 특히 청석(靑石)을 사용한 집을 청석집, 삼나무나 노송나무를 기왓장 정도의 판으로 만들어 이은 지붕을 너와지붕이라 하였다. 굴피지붕은 굴참나무의 굵은 껍질로 지붕을 얹은 집을 일컫고, 초가지붕은 볏짚을 이엉으로 엮어서 얹은 집이며, 기와지붕은 기와를 올린 집이다.

기와지붕도 초가에서 출발한 것은 틀림없는데, 처마곡선이 이처럼 운치 있게 만들어지게 된 것은 선자서까래 구성이 발전했기 때문이다. 기와지붕은 형태에 따라 맞배지붕 · 팔작지붕 · 우진각지붕 · 사모지붕 · 육모지붕 · 팔모지붕 · 갖은모지붕 · 丁자지붕 · 십자지붕 · 고패지붕 · ㄷ자지붕 · ㅁ자지붕 · 솟을지붕 · 까치구멍지붕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형태의 다양성은 집의 평면구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 그 외에도 집의 성격, 경제적인 여건과 집주인의 취향에 따라 형태가 결정된다.

기와지붕은 기본적으로 암키와와 수키와로 이뤄지지만 그 외에도 추녀 끝을 장식하는 막새기와와 용마루 끝을 마감하는 망와가 있다. 망와는 한국 축구 응원단의 공식 엠블럼인 치우천왕상 또는 귀면상이 대표적이지만 민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띤 얼굴상과 구름무늬, 식물무늬 등 매우 다양하다. **"한 어둠은 엎드려 있고 / 한 어둠은 그 옆에 엉거주춤 서 있다 / 언제 두 어둠이 한데 마주보며 앉을까 / 또는 한데 허리를 얹을까"** [13]

그 외에도 궁궐의 주요 전각에는 규모에 따라 수가 다른 여러 모양의 잡상도 두었다. 이렇게 용도와 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지붕은 시인에 의해 생명체로 살아난다.

무늬 진 저녁 뼈마디에 내 이름을 꽂는다, 무슨 무인도 깃발 같은 붉은 창문을 달고 지나가는 바람을 간절히 부른다. 늦은 구름이 태연히 지나간다. 목울음 삼키는 먼 산등성이 툭, 붉어져 나온 심장에도 투명한 유리창이 달려 있을가, 셀로판지 같은 허공에 뺨으로 부비는 함석지붕들이 흐르고 싶어 안달이었다 /// 주름진 어둠의 표피 속에서 수련처럼 천년을 훌훌 벗어버린채 푸른 불꽃이 다투며 피고 있었다. 잘 망치질된 함석지붕처럼 나도 흐르고 싶었다.///

–신지혜 '바람부는 저녁에는 나도 함석지붕처럼 흐르고 싶다'

지금까지 살펴본 지붕은 겉모습이다. 진정한 지붕의 역할은 그 속이다. 그 곳에는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살고 형제들도 함께한다. 창으로 불빛이 나오는 집은 볼수록 정답고' 한 지붕 밑에서 각자의 방에 들어가 꿈을 꾼다. 행복한 가정이 지붕 아래 있다 그래서 지붕은 곧 집이다.

서리 내린 / 지붕 지붕엔 밤이 앉고 // 그 안엔 꽃다운 꿈이 딩굴고 // 뉘 집인가 창이 불빛을 한입 물었다 / 눈비탈이 / 하늘가는 길처럼 밝구나 // 그 속에 숱한 얘기들을 줍고 있으면 / 어려서 잊어버린 '집'이 살아났다 // 창으로 불빛이 나오는 집은 다정해 / 볼수록 정다워 // 저 안엔 엄마가 있고 / 아버지도 살고 / 그리하여 형제들은 多幸하고––///

–노천명 '창변(窓邊)'

12) 김달진 '白日哀傷' 외

13) 강은교 '망와(望瓦)'

여행 길, 차창에 스치는 황혼 역 지붕들을 보면서 돌아갈 수 없는 옛집을 그리는 '창변'을 지나,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그 옛날 내가 살던 옛집의 지붕으로 가보자.

/// 우리 살던 옛집 지붕에는 / 우리가 울면서 이름 붙여 준 울음 우는 / 별로 가득하고/땅에 묻어주고 싶었던 하늘 / 우리 살던 옛집 지붕 근처까지 / 올라온 나무들은 바람이 불면 / 무거워진 나뭇잎을 흔들며 기뻐하고 /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그해의 나이테를 / 아주 둥글게 그렸었다 / 우리 살던 옛집 지붕 위를 흘러/지나가는 별의 강줄기는 / 오늘밤이 지나면 어디로 이어지는지 /// –이문재[14] '우리 살던 옛집 지붕

내가 떠남으로 빈집이 된 옛집, 집 곁 나뭇잎이 춤추며 기뻐하고, 보고 싶을 때마다 반겨주던 푸른 지붕의 옛집. 평생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고향집의 지붕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로망이 낡은 원두막 지붕에 있다.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그런대로 비가 덜 새는 곳을 가려 소녀를 들어서게 했다."**[15]

처마와 추녀

하늘로 날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길게 늘이운 주렴에 반월이 숨어
아른 아른 봄밤이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가는 밤
고와라 고와라 진정 아름다운 지고 ///
살살이 퍼져 내린 곧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한복을 입은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하늘로 날듯이 길게 뽑은 전통한옥의 추녀와 처마를 배경 삼음으로서 한국의 고전미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조지훈 선생의 '고풍의상' 중 일부이다.

한국의 미를 말할 때 우리는 위의 시구처럼, 한옥의 유려한 선과 여인의 한복과 버선의 선을 말한다. 한 · 중 · 일을 돌아본 외국인들 중 상당수는 중국이나 일본과 다른 한국의 고유한 선을 발견하고 찬탄한다. 그들은 이로써 스케일이나 기교를 떠나 한국 건축을 사랑하며, 어떤 이들은 아예 눌러 앉아 목수 수업을 받는 사람도 있다. 한옥지붕의 처마곡선은 추녀로부터 시작된다. 추녀의 길이와 형태는 지붕처마 곡선에 절대적이다. 그래서 예부터 도목수는 추녀를 만드는 비기(秘技)를 아끼는 제자에게만 전수하였으며

7

8

7. 경복궁 지붕의 잡상–건물의 규모에 따라 개수가 다르다
8. 불갑사 대웅전의 풍경달린 처마.

이러한 전통이 남아 있어 지금도 어떤 대목들은 은밀하게 추녀 먹을 놓는다고 한다.

추녀 끝에서 추녀 끝으로 이어지는 처마의 생동하는 리듬감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깊은 그림자로 인한 음양의 조화, 공간감의 확대로 인한 안온감도 추녀만이 갖는 특성이다. 추녀는 여름 장맛비나 태풍의 들이침을 막아줌으로써 벽면을 보호하고 창문의 창호지를 젖지 않게 하며, 쑥, 마늘, 장작 등의 건조 내지 저장 공간으로 쓰이기도 하며, 애경사에는 반 실내공간으로 비좁은 집을 확장시키기도 하는 등 실용성 또한 크다. 그 뿐 아니라 처마 밑의 공간은 대류현상으로 인해 추위와 더위를 완화시킴으로 한서(寒暑)차가 많은 한국의 실정에 안성맞춤이다.

"처마 밑에 / 시래기 다래미 / 바삭바삭 / 추어요.// 길바닥에 / 말똥 동그램이 / 말랑말랑/얼어요"[16], **"쏟아지는 비를 피해 찾아갔던 짧은 처마 밑에서 아슬아슬하게 등 붙이고 서있던 여름밤을 나는 얼마나 아파했는지"//**[17], **"항구에 밤이 오고 / 밤은 추녀마다 등을 달았다 ///"**[18]란 시들은 다양한 추녀의 용도를 그리고 있으며, 아래 시들은 참새, 제비, 닭 등이 노니는 처마와 추녀의 풍경들을 노래하고 있다.

"어득한 추녀 그늘 작은 뜰 안에 / 빠알갛게 고이 익은 꽈리열매. ///"[19], **아침 잠 잃은 / 참새들은 / 자리 걷어차고 / 추녀 끝에 나와 ///**[20] **장국화 핀 / 앞집을 넘어 처마 끝에 / 참새들이 요란히 지저귄다 ///**[21] **황혼 서린 추녀에 제비 찾아 들고 / 모란꽃 한 두잎이 소리없이 듣는고야 /**[22] **추녀끝 귀들소리/너무나 처량한 소리///**[23] **처마 안 좁은 제비집 속에는 / 벌서 두배 ㅅ 새끼 주둥이 넷이///**[24] **낫닭(午鷄)의 노래도 처마 끝에 숨기고///**[25]

처마나 추녀는 실내에서 창이나 문을 통하여 밖을 보거나, 나가는 전이공간이다. 그렇기에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는 안테나 노릇을 하게 마련이다.

14) 1959. 경기 김포. 「내 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마음의 오지」
15) 황순원의 단편소설 '소나기'
16) 윤동주 「겨울」
17) 허연 「칠월」
18) 이찬 「항야(港夜)」 1910. 함남 북청. 「대망」, 「분향」 외
19) 김달진 「꽈리열매」
20) 황석우 「아침참새」
21) 이태환 '석우(夕雨)'–「삼청동」
22) 이영도 「낙화(洛花)」
23) 윤영춘 「가을」
24) 김용득 「연계」
25) 노자영 「여수」 1898–1940. 「사랑의 불꽃」, 「처녀의 회한」
26) 유지영

"고드름 고드름 수정 고드름"[26]을 추녀 끝에서 떼어내 칼싸움하던 어린 날들. 밤새 얼었던 고드름이 한낮 햇살에 녹아 낙수되면 **"처마에 낙수소리 인제분명 봄이로고 / 복비는 동령승이 마슬로 올 때로다 /오늘쯤 회심곡 소리 들릴 것도 같아라"**[27]처럼, 봄은 우리 곁에 성큼 와 있고 동안거를 끝낸 탁발스님을 동네로 내려 보낸다. 그뿐일까. 하룻밤 사이에 수선화 꽃대를 한뼘이나 키우기도 한다. **"집앞 처마 밑에 / 봄은 이미 서성거리고 // 이태 전 심은 수선화 / 새잎들이 예쁘더니 // 밤새에 / 살진 꽃대가 / 한 뼘이나 솟았구나."///**[28]

"저른 처마 안에 드는 해는 되오 길다 / 뜰에 시든 수국 그늘"[29]이 되고 **"뜰을 헐어내고 포도를 심어두니 / 좁은 처마 안에 오르고 서린 넌출 / 그나마 보이던 하늘마저 가려버(린다)"**리면 여름이고 **"구름이 밀려들고 굵은 비가 쏟아진다 / 앞 뒤 처마 끝에"**[30] **"처마 끝 내리는 비는 줄줄이 쏟아진다. / 산동 깊은 밤에 구진 비는"**[31] 장마가 된다. 그리고 가을걷이를 처마 밑 담벼락에 갈무리하고 다시 겨울이 오면 **"누우런 고드름 주렁 주렁 / 목매어 단 추녀 아래로 / 괭!괭! 징소리"**[32]내며 지금은 볼 수 없는 굴뚝청소부가 다녔다.

처마에서 변화하는 자연을 관조한 위의 시들과 다른 한편의 시가 있다. 시인은 폐결핵을 앓았고 카프동인이었기에 시에 대한 해석은 평론가마다 다른데, 느끼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비바람 험살궂게 거쳐간 추녀 밑– / 날개 찢어진 늙은 호랑나비가 / 맨드라미 대가리를 물고 가슴을 앓는다. // 찢긴 나래에 맥이 풀려 / 그리운 꽃밭을 찾아갈 수 없는 슬픔에 / 물고 있는 맨드라미조차 소태 맛이다. // 자랑스러울손 화려한 춤 재주도 / 한 옛날의 꿈조각처럼 흐리어 / 늙은 무녀(舞女)처럼 나비는 한숨 쉰다.[33]

이제 비가 오면 처마를 때리는 빗소리도 / 겨울이면 내달리던 고드름도 없이 / 문밖만 내다보는 흙 묻은 신발코를 가슴 쪽으로 돌려놓으시고 / 어머니는 철 없이 싹이 돋은 감자를 수저로 긁고 계신다 /// 새로 집을 수리하고 어머니는 반이나 쪼그라들었다 / 안방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없어지고 / 툇마루가 없어지는 동안 / 이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구나 / 옛이야기를 조르면 어머니는 돋보기를 쓰고 / 오히려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 /// 어머니 오늘은 옛집에 다녀왔어요 / 섬돌에 얹힌 낯선 신발들이 어찌나 커다랗게 보이는지 / 아는척도 못하고 그냥 돌아왔답니다.

–박판식[34] '처마 아래 작은 집'

처마 밑 섬돌의 낯선 신발에서 옛집이 남의 집이 되었음을 실감한 시인은 그 집을 가슴에 담고 있을 어머니께 독백을 한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이 밤도 처마 끝을 향해 올라가는 포도순의 생명력을 부러워하고, 무력함을 자탄하며 자식을 간병한다.

"처마 끝에 서린 연기 따라 / 포도순이 기어 나가는 밤, 소리 없이, / 등에 서리나니, 훈훈히,/아아, 이 애 몸이 또 달아 오르노나 / 가쁜 숨결을 드내 쉬노니, 박나비처럼, /// 아아, 이 애가 애자지게 보채노나!/불도 약도 달도 없는 밤, // 아득한 하늘에는 / 별들이 참벌 날으듯 하여라."

–정지용 '발열(發熱)'

"날새들 떠다밀고 사라지는 황혼 저켠으로 / 축축히 젖어오는 별들, 한등 두등 / 사원 추녀 끝으로 번져갈 때"[35] **"산신각 추녀 끝 / 솔잎 푸른 바람을 물고, 동박새 / 낮게 낮게 산을 내려 / 부도비 발치 배꽃 같은 흰 눈/관음의 눈매 닮은 솔 씨 묻었구나"**[36]와 같이 사찰의 처마에 관한 시들이 꽤 있다. 하지만 **"성불사 깊은 밤에 그윽한 풍경소리 / 주승은 잠이 들고 객이 홀로 듣는구나"**[37]란 노래처럼 사찰의 처마에는 풍경이 있어야 제격이다.

안정사 옥련암 낡은 단청의 추녀끝 / 사방지기로 매달린 물고기가 / 풍경 속을 헤엄치듯 / 지느러밀 매고 있다 / 청동바다 섬들은 소릿골 건너 아득히 목메올 테지만 / 갈 수 없는 곳 풍경 깨어지라 몸 부딪혀 저 물고기 / 벌써 수천 대접째의 놋쇠소릴 바람결에 / 쏟아보내고 있다 / 그 요동으로도 하늘은 금세 눈 오듯 멍빛이다///

–김명인[38] '안정사'

청도 산속 가부좌로 들어앉은 운홍사 처마 풍경에 물고기가 보이지 않는다 스님도 물고기를 따라갔는지 보이지 않고 허물어진 돌담 옆에서 흰 강아지 한 마리 엷은 겨울 햇살에 조을고 있다 법고 소리도 죽비소리도 들리자않는 절 뒤 은수원사시나무 가지에 은빛 비늘 몇 개 걸리어 번뜩인다 아마도 그리움보다 깊은 적멸의 바다로 떠난 모양이다 ///

–허형만[39] '그 처마 풍경엔 물고기가 없다'

풍경소리는 귀 기우릴 적에 들려야 제 맛이다. 소리 없는 풍경도, 자심한 폭풍우에 쉴 새 없이 울리는 풍경도 본연이 아니다. 백자 속 풍경소리는 그래서 귀하다.

드높은 부연(附椽) 끝에 풍경(風磬)소리 들리던 날
몹사리 기다리던 그린 임이 오셨을 제
꽃 아래 빚은 그 술을 여기 담아 오도다.

–김상옥 연시조 '백자부(白磁賦)' 중

다음호에 계속

27) 이은상 「흐르는 봄빛 초」
28) 허연 「봄」 1966. 「불온한 검은피」
29) 이병기 「뜰」
30) 이병기 「소나기」
31) 이해문 「겨울비」
32) 이희승 「구두쟁이」
33) 윤곤강 「나비」 1930.
34) 1973. 함양 「밤의 피치카도」
35) 김명인 '오래된 사원' 중
36) 황영희 '낙가사에 눈 내리고' 중
37) 이은상 성불사의 밤
38) 1946. 경북 울진. 여행자나무 외
39) 1945. 전남 순천. 그늘, 따뜻한 그리움 외